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2월 21일(금)  
..(음력 1월 28일)..

Пятница  
21 февраля 2020г.  
№ 7(11687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2월 23일은 러시아에서 조국수호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모스크바, 최 발렌틴 한국 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 별세

러시아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인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의 손자 최 발렌틴(82) 러시아의 한국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은 지난달 경추 골절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14일 오후 3시쯤(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별세했다.

최재형 선생 3남의 아들인 최 발렌틴은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최재형 선생을 세상에 알렸을 뿐 아니라 '사진으로 본 러시아 항일 독립운동' 전 3권을 출간하며 고려인들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활동에도 앞서왔다.

올해가 4월 참변(일본군이 1920년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을 대규모 학살한 사건) 100년이 되는 해이자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인 터라 최 회장의 별세를 두고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최재형 선생 손자 최 발렌틴 한국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 빈소가 마련되었다.

장례식은 19일 거행되었다.

### 김주환 원장, 임기 만료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이 3년 임기 만료로 2월 26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김 원장은 사할린 주민들이 원어민들에게서 한국어와 한민족문화를 배우도록 노력해왔고 그동안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체험 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해 사할린과 한국 간 교류 확대에 공로가 컸다.

### 사할린교육원장으로 이병일 선생 부임

신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이병일 서울 불암중학교 교감이 부임했다. 제9대 사할린 원장 내외는 오는 23일(일) 사할린에 도착하여 김주환 원장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해졌다.

### 안드레이 메드웨제브

### 사할린주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

2월 18일부터 사할린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안드레이 메드웨제브가 부임했다. 그 전에 그는 <로스아톰>공사 소속 <아세>엔지니어링 콤파니 부사장으로 활약했다.

### 사할린주 수산업체, 연초부터 명태 6만1000톤 어획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이 불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연초부터 명태 6만1000톤, 태평양 청어 8072톤, 대구 8420톤을 어획했다.

14개의 사할린 및 쿠릴 업체들의 어선 40척이 명태를 잡아 작년 같은 시기보다 더 많은 생선을 획득했다.

청어는 작년에 비해 2818톤 적고, 대구는 5740톤 더 많이 어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 친애하는 여러분!

2월 23일 조국 수호자들의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안전 수호에 기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사할린주의 발전과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막중한 기획의 실현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전투에 복무했던 분들은 특별한 명예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적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대항했으며 뛰어난 용맹함과 장렬한 기개를 보여주었고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대조국전쟁의 승리는 이렇게 쟁취되었습니다.

사할린주의 근기관의 현대적인 경계태세는 바로 국방력의 공적에 있습니다.

1945년 여름 성공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하여 쿠릴 열도와 남사할린을 해방시키고 2차대전도 끝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전후 사할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현재 사할린 지역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사할린주와 우리나라의 권익을 수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성취되고 친지들의 응원으로 더욱 새로운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유리 트루트네브, 사할린주 방문

지난 2월 17일-19일 3일간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구 대통령 전권대사가 사할린주를 방문해 시찰 및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들은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전략, 유즈노사할린스크 개발, 침몰 선박 인양 및 활용, 사할린주에서 석유가스 기획 시행, <고르니 워스두흐>스포츠단지 제반시설 검토, 선도개발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그는 <고르니 워스두흐>스키리조트 제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연방 예산으로 건축된 제3김나지아 학교를 방문하며 <1941년-1945년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을 맞아 대조국전쟁 참전 용사들, 노동전선 참전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는 일정도 가졌다.

18일 오전에 주 정부에서 열린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관련 회의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규모 투자기획을 소개하고 섬지역이 항공망과 현대적 항구에 최신 장비를 갖춘 대규모 물류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할린에는 의료 및 디지털 클러스터를 계획 중이며 전력에너지 분야와 공공주택사업, 석유 및 가스, 건설과 농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현안이다.

테크노파크는 사할린의 경제 발전에 특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조성한 사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행되고 있다.

코르사코브 구역에는 여러 사업개발센터들을 두어 주택건설 공장을 건설해 매해 30만m<sup>2</sup> 모듈식 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에는 콘테이너 운송개발에 따른 물류 기술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지역의 계획과 맞물려 있어 중요하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의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근본이 되는 가정 지원 정책을 언급, 가정들을 위한 50개의 사회적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3년간 주 및 연방 지원금으로 사할린에 234개 주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사할린주 정부의 기획들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2월 23일은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

우리는 러시아 국경을 지켰습니다

소·중 국경 분쟁(다만스키 섬에서의 전투) 참가자 김성곤

2월 23일에는 러시아에서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은 남아를 비롯 모든 남성들에게 축하한다. 남성들의 군복무는 국가에 대한 의무다.

최근에는 전쟁 참전자 등 관련 행사, 애국적 행사에 70대의 한 동양인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분이 바로 김성곤(1948년생) 씨다. 이분의 러시아 이름은 '블라지미르 페트로위츠'다.

블라지미르 페트로위츠는 소·중 국경 분쟁(다만스키 섬에서 충돌)의 참가자다. 본사에서 오래 전부터 취재를 하려고 하다가 조국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드디어 그분 맥을 찾았다.

돌린스크 출신인 김성곤 씨는 1967년에 하바롭스크 사촌집을 찾아 거의 반년을 지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군대에 가게 되었다. 트럼펫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음악을 특기로 소대에서 군복무를 희망했다. 소원대로 가게 되었는데 집도 풀지 못하고 군사단 참모내 한 사무실에 불려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동양인(나중에 그 분이 중국인이라고 알게 되었음) 소령이 '조선 말을 아냐'라고 물어보길래 김성곤 씨가 '조선학교 5학년 까지 나왔다'고 했더니 조선 신문 한 보도 기사를 읽으라며 글도 쓰라고 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 김성곤 씨는 정보(첩보)소대에 입대했다. 그날 8명

의 정보군을 뽑았는데 주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김성곤 씨는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었고, 또 일어도 조금 할 줄 알았으니 물론 정보군으로서 환영이었다. 3개월 동안 라디오 도청, 무선 방위 측정 등, 중국어·일어·한국어의 숫자와 특별 기술 술어에 대한 기술연수를 받고 무선 통신사로 군에 복무하였다.

1860년 북경 조약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은 아무르강 중국 쪽 해안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중국 어부들이나 농민들이 아무르강을 공식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양 국가 간 관계가 수십년간 우호적이었고 국경 부근 인구가 많지 않아서 중국 어민들이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에서 어업을 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국경문제가 심각해졌다. 중국인들과 소련 국경수비대 군인들과의 비무장 상태의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1969년 3월 2일 다만스키 섬(무인도, 호수 때 섬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다)에 몰래 들어온 중국 군사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군사들과 무장 충돌이



있어 그날 소련 군인 31명이 전사했다. 그 다음 큰 무장 충돌은 1969년 3월 15일 벌어졌다.

김성곤 씨는 무선 통신사-군사 첩보(정보) 병력으로 다만스키섬 분쟁에 참가했다. 한 번은 중국 군인들이 러시아 탱크를 향해 총을 쏘아 못 움직이게 했다. 그때 정보소대 4 그룹(한 그룹에는 지뢰공병 2명과 무선 통신사, 그리고 방어를 하는 군인 4명)이 그 당시 이 탱크에 비밀기술의 장비가 있어 이 탱크를 구하든가, 슈류탄을 놓고 폭발시켜야 했다. 탱크에는 이미 중국 군인들이 있었고 총을 쏘아 탱크까지 못가게 하였다. 소련 군인들은 팔꿈치로 기여 가야만 하였다. 그때 한 총알이 김성곤 병력 머리

위 왼쪽을 스쳐갔다. 다행히도 입원은 하지 않고도 상처 부위를 꿰매었다. 머리를 스친 총알 자리는 지금도 남아있다.

"진짜 전쟁이었지요. 물론 무서워하기도 했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임무, 나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라고 김성곤 씨가 말했다.

다만스키 분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20-25년) 말하지 못했다. 비밀처리로 돼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그의 복무 기간은 2년에서 반년을 더 복무하게 되었다. 제대 후 그를 대체할 전문 무선 통신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스키 분쟁 참가자 김성곤 씨에 대한 정보는 <포베다>기념관의 전자스텐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9년 11월 말에 사할린에 돌아온 김성곤 씨는 오랫동안 '평화의 하늘'에 적응하지 못했다. 비밀 조치로 외국도 못나가고, 이야기도 못하니 한이 좀 쌓였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 다만스키 분쟁 참가자들을 진짜 참전자로 인정받게 되어 많은 행사에도 초대하기도 하고 특별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분쟁으로 50여년이 지났다.

김성곤 씨에게는 무엇보다 그때의 동료들을 잃은 게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필자에게 같이 복무하던 친구의 사진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어요." 한숨을 쉬었다.

제대하고 나서 그는 돌린스크 제지공장에서 제지기계 기사로 15년간 일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이사 와서 가죽고무신공장, 상점 등에서 일해왔다. 김성곤 씨가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브레타>회사였다. 건축, 목재 등에 관한 전문 술어 통역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여러 한국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도 많이 받았단다.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 셋,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손자녀, 증손녀까지 두었다.

김성곤 씨는 마음 깊이 새겨진 다만스키 분쟁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며 이야기한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최근에 그는 3번이나 참전용사들과 함께 다만스키 섬을 찾았다. 이에 대해서 그는 특히 전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현 연해주 지사)에게 고마워한다. 분쟁시기에 코제마코는 다만스키 섬 부근 니즈니-미하일롭카 마을에 살았던 유소년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분 덕분에 다만스키 분쟁 참가자들을 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블라지미르 페트로위츠가 여러 훈장 중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메달은 바로 다만스키 참전 메달이다. 얼마 전에 그는 애국교육으로 러시아 사회원 감사장도 받았다.

그는 벌써 몇 년간 <크리스탈>스포츠회관 위산 언덕에 위치한 샘물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마다 그는 이 샘물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일주일에 2-3번 삽과 도구로 작업을 하고 있다. 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듯이.

진정한 조국 수호자이신 김성곤 어른,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사할린에 <당뇨병 환자 학교> 개설

사할린주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일련의 교육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학교> 참가자들에게 진단 및 질병 치료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친다.

당뇨병은 세계에서 가장 확산된 질병 중 하나로 오늘날 이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7%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할린주에 당뇨병 환자가 1만 9천 명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질병에 대한 주 보건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버 자원봉사자>협의회 대표들과 공동으로 <당뇨병 환자 학교>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행사에 이러한 질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 - 의사, 환자, 이들의 친인척, 활동적인 시민들 - 을 초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수업은 오전9.00에서 11.00까지 일일표에 따라 진행된다.

- 2월 22일 - 상담 및 진단 센터의 회의실;
- 2월 29일 - 제4호 보건소 회의실;
- 3월 7일 - 제6호 보건소 회의실;

수업 시간에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양, 신체 활동의 필요한 정도, 혈당 자체 체크 및 저혈당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앞으로 이 단체는 주내 여러 구역에서도 이런 <건강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овали "Школу больных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цикла обуча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Школы здоровья" выступят эксперты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и лечению заболевания.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мире. Сегодня от эт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традает более 7% населения Зем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19 000 больных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здраве это заболевание стои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ветов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ы больных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К участию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к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н проблемами этого недуга — врачей, пациентов, 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просто активных граждан.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 9.00 до 11.00 по следующему графику:

- 22 февраля — конференц-зал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 29 февраля — конференц-зал поликлиники №4;
- 7 марта — конференц-зал поликлиники №6;

На занятиях пациенты в доступной форме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о питании, необходимом уровне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самоконтроле гликемии и сахароснижающих препаратах. В дальнейшем организация таких школ планируется 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어린 기술자들 경쟁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청소년 창작센터는 2017년

부터 <러시아 기술 인재> 전국 로봇기술경연 진행의 지역 인재센터가 되고 있다.

2월 22일-22일 유·청소년창작센터는 제3회 로봇기술경연 대회 지역 단계를 개최한다. 경연 개막식은 2월21일 12시 창작센터 강당에서 열리며 이틀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이카료노크(러시아 기술 인재-아동)》 - 유치원생 15개 팀을 위한 시범 경연.
- 《이카르 스타트(러시아 기술 인재-출발)》 - 초등학교 1학년-3학년생 8개 팀 경연.
- 《이카르 클래식》, 《이카르 테크노》, 《이카르 프로피》 - 중·고등학생 11개 팀 경연.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경계 없는 러시아 기술 인재>행사장을 조성해 여기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발명의 방식은 건축>이란 주제로 자신의 로봇기술 기획을 발표한다.

올해 혁신적인 경연 부문은 <러시아 기술 인재-프로그래머> 경연으로 학교 학생 20명이 참가한다. 지역 단계 로봇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자들은 노글리키, 티뭉스코예, 포로나이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청소년들과 <퀵토리움> 아동 테크노파크의 교육생을 포함한 총 122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역 단계 우승자들은 <2020 로보페스트> 전국 청소년 로봇기술 축제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기술 인재> 러시아 연방 경기에 사할린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고 아동창작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8면에 계속)

# 울산시, 6월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준비

## 정부·유관기관과 협력키로... 시 "북방경제협력 중심 도시 도약 기회"

울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산하기관, 교육청,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와 정부, 유관기관이 오는 6월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합친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오전 시청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산하기관, 교육청,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포럼 추진 상황과 관련 기관·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협조 사항,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울산에서 열린다. 개최식, 한-러 지방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SUMMIT), 한-러 경제협력 세션(남·북·러 삼각 협력, 비즈니스, 에너지), 첨단융합기술 세션, 문화예술 세션 등이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따라서 한-러 지방협력포럼 정례화를 모색하고 양국 지방 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시는 포럼 성공 추진을 위해 단장에 경제부시장, 부단장에 미래성장기반국장을 선임하고 시 관련 부서, 정부 기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대통령의 개최 합의와 2018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로 매년 한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가며 열린다.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제1차 포럼, 지난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2차 포럼이 각각 열렸다.

시는 제7기 민선 공약인 북방경제협력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북방경제협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3차 포럼을 유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정부 신북방 정책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으로 공동 번영 토대를 마련하고 울산시가 북방경제협력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러시아 11개 극동연방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이다.

인구는 837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1억4천700만 명 가운데 5.6%지만, 면적은 695만km<sup>2</sup>로 러시아 전체 1천712만km<sup>2</sup>의 41%(한반도의 28배)에 달한다.

(울산제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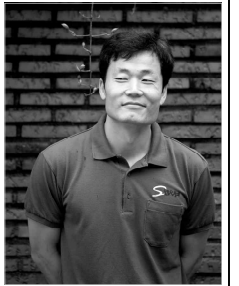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 가슴이 찢는다

한 번 스치면 우연이지만 두 번 눈여겨보면 인연이다. 직접 찾아간다면 필연이 된다.

지난 팔월,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탔을 때였다. 낮이었지만 비행 중간에 실내등이 꺼지고 창을 모두 내리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다가 밖이 궁금해서 담요로 빛을 가리고 창을 살짝 열었다.

작은 틈으로도 손전등처럼 강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에 적응이 되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몇 년 전에 유럽을 갈 때도 이번처럼 햇빛 가리개를 열었다가 우연히 보았던 강, 독특하고 웅장해서 잊을 수 없었던 그 강이 다시 보였다.



사행천이다. 거대한 용이 몸부림치듯 강은 좌우로 급격히 휘어지며 북극해를 향해 끝없이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십 킬로미터 상공의 비행기가 오히려 왜소해 보이는 크기였다. 나는 산맥이 되고 호수가 되었다는 신화속의 거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살다보면 나쁜 일이 연이어 닥친다는 걸 알게 된다. 내게는 올해가 그런 해였다. 나중에는 어떤 소식에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버티기에도 지쳐버린 마음은 무엇을 생각해도 무덤덤할 뿐이었다.

몇 년 전에 끊은 술 생각이 간절해지던 찰나에 문득 그 강을 떠올렸다. 나는 세계지도책을 펼쳤다. 인터넷 지도로도 강을 찾았다. 러시아의 오비강일까 싶었지만 이르티시강이 더 맑은 듯 했다.

나는 지도 위에 선을 그었다. 한국에서 이르티시강으로 가는 팔천 킬로미터의 여정.

몇 년 뒤, 크고 작은 숙제를 일추 끝내고 동해에서 떠나는 블라디보스톡행 페리에 작은 오토바이를 실을 생각이다. 이르티시 강가의 둔덕에 앉아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싶다.

나이가 들면서 가슴 찢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가슴이 찢다면 남은 시간도 문제없다.

광주에서 김남중

# 구한말 조선 묘사한 사진 등 희귀자료 담은 저서 러시아서 발간

## 제정러시아 탐험대가 수집한 자료 고려인 역사학자가 편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중 특파원 = 19세기 말~20세기 초 구한말 조선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희귀 사진과 자료 등을 담은 저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간됐다.

러시아의 동물학자이자 어류학자, 여행가인 포르트 슈미트(1872~1949)가 구한말 한반도 지역 등을 탐험하며 수집한 자료를 모스크바의 고려인 역사학자 벨라 박 박사(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연구원)가 현지 고문서보관소 등에서 찾아내 정리한 책이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됐다.

'포르트 슈미트의 조선-사할린 탐험. 1899~1901년. 조선 여행'이란 제목의 책에는 제정러시아지리협회의 주문으로 3년 동안 동해와 오후츠크해, 사할린, 한국, 일본 등을 연구목적으로 여행한 슈미트 탐험대가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실렸다.

벨라 박이 제정시절 수도였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지리협회 고문서보관소'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문서보관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등에 소장된 자료들을 살살이 뒤져 찾아낸 것들이다.

슈미트 탐험대는 1900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산에서 부산까지 약 850km에 걸친 해안지대를 살펴보고, 뒤이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이동하며 조선인의 신체적 특징, 풍습, 제도, 신앙, 동식물계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사진을 찍거나 관련 사진들을 수집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고문서보관소들에 소장돼 있던 이 희귀 자료들이 벨라 박 박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돼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다.

저서에는 특히 구한말 조선의 도시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150여 장의 귀중한 사진 자료들이 포함됐다. 슈미트 탐험대가 직접 찍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사진들이다.

소박한 한복을 입은 평민들, 궁중 예복이나 제복을 차려입은 고위관료나 양반 계급 남녀, 초가집이 펼쳐진 시골과 나무터 풍경, 불교 사찰과 궁궐 모습, 심지어 고종 황제의 초상 등을 담은 사진과 당시의 전통 장례식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들이다.

벨라 박은 지난 11일 열린 출판 기념식에서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된 바 없는 귀중한 자료들이 책에 담겼다"면서 "구한말 조선의 정치, 사회·경제 상황, 문화 등의 연구를 위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여행' 책 표지.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이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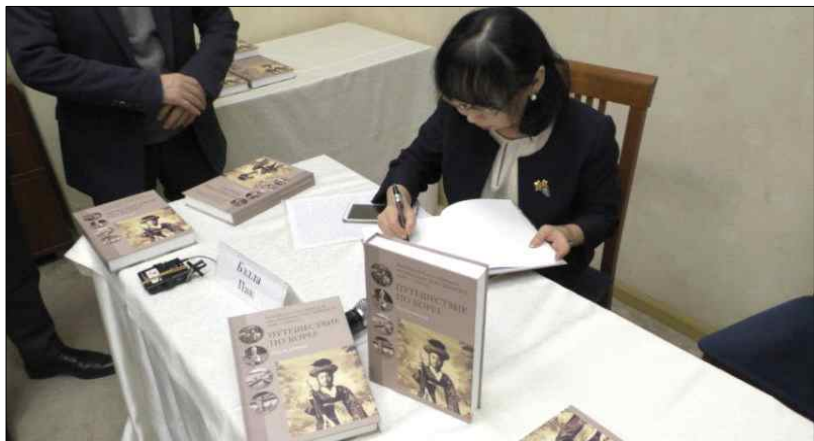
이메일 :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Корее" (1899-1901)



11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в Москве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Пак Бэллы Борисовны** Корейско-сахалин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П. Ю. Шмидта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Корее" (1899-1901). Часть перва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ченые-корееведы,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российск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ти.

Источник: <https://koreanradio.info>

## Какао Group – сам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ая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омпания в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сам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стала Какао Group, которая управляет сервисом те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Какао Talk и интернет-банком Какао Bank.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порталом Job Kogea сред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готовящихся к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63,9% респондентов изъявили желание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Это на 10,1%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 Какао Group проголосовали 14,6%. Далее следуют Samsung Electronics, CJ CheilJedang – Naver, SK Hynix, LG, Amore Pacific.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причинах выбора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респонденты отмет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облюдения баланса между работой и частной жизнью, а также высокий годовой доход.

KBS World

## Продажи в беспощинных магазинах РК превысили в 2019 году 20 трлн во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дажи в беспощинных магазинах РК превысили 20 трлн вон.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щинной торговл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4 февраля, в 2019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4 трлн 858 млрд 600 млн вон или 20 млрд 872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31,1% больше, чем в 2018 году. 83% этой суммы пришлось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магазинов Duty Free выросло на 9,9%, составив 20 млн 16 тыс.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число покупателей-южнокорейце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5%, составив 28 млн 400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28 января 2020 г. директор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ВР)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назвал имена семи выдающихс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разведчиков-нелегалов,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Это Герой России Ю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Шевченко,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ихаил Анатольевич Васенков, Герой России Виталий Вячеславович Нетыкса и его супруга Тамара Ивановна Нетыкса, Владимир Иосифович Лохов и Виталий Алексеевич Нуйкин", — рассказал Нарышкин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МИА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В декабре Нарышкин сообщил, что СВР в преддверии своего столетнего юбилея в 2020 году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фициально раскрыть имена семи "сотрудников особого резерва".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служба рассекретила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выдающихся разведчиков-нелегалов.

Правнук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 решил рассказать нашим читателям о своем деду, жившем на Сахалине в городе в Шахтерске с 1942 по 1953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Здесь Ким Ен Чер (Ким Е.Ию) закончил 10 классов (вечерняя школа). Его отца мобилизовали на Сахалин для работ на шахте. В семье он был младшим (два старших брата и сестра).

Не прервется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 Мой прадед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читатель!

Меня зовут Ким Вячеслав, я московский кадет 8 класса, школы № 2120. Обучаясь в кадетской школе, я получаю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оспитание с учетом возрастной психологии, развиваю и совершенствую свои духовные и физи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понимаю и осознаю, что такое честь и долг гражданина, служащего Отечеству.



Моя семья хранит историю моего прадедушк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лковник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Его история дошла до меня от моей бабушки Эммы, ветерана труда СССР. Дедушка Анатолий (племянник Ким Е.И.) и бабушка Эмма называли моего

отца Евгением, в честь героя.

Ким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до 1978 года Ким Ен Чер) родился 27 февраля 1932 года в городе Кочан 고창 (Южная Корея),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Образование высшее – в 1960 году окончил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факульте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А.Жданов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Японская филология». Владел япо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английским и испанским языками. Впоследствии он переехал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Ленинград)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Академии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ССР.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ёбы, прадедушка переехал в Москву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службы. Служил в Первом гла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КГБ СССР. На оперативной работе в разведке с 1962 года. Работая в Москве, он встретил девушку по имени Маргарита, на которой вскоре женился. У них родился сын Юра.

«В 1966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разведчика-нелегала выведен в страну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как высо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опытный работник, с широким кругозором, хорошим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и и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В работе проявлял свойственные ему качества - смелость, решительность, сочетавшиеся с такими чертами характера как, хладнокровие,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и находчивость.», - так пишут о нем в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V степени,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нагрудными знаками «Поче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 службу в разведке», другими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знаками и медалями.

Мой прадед побывал в Японии и на Кубе.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службы в Япони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получил известие о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и свое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сы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1 декабря 1987 года, за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долга», полковник КГБ СССР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был удостоен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вручением ордена Ленина и медали «Золотая Звезда» за номером 11562.



Вернувшись в СССР,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продолжал работать в центральном аппарате КГБ СССР. Но судьба развела его с Маргаритой, которая так и не смирилась со смертью сына.

По рассказам моей бабушки Эммы, мой прадед проживал в Москве и был очень скромным человеком. Хотя ему предоставили служебный транспорт, он от него отказался, поскольку не считал зазорным передвигаться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как все.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 12 ноября 1998 года, когда он возвращался с работы, его сбил автомобиль. Из-за засекреченности на его похоронах было всего лишь девять корейцев—родных и знакомых.



Похороны героя взяло на себя государство, хоронили со всеми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похорон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знакомых героя попросили следовать на поминки,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здании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Огромный зал, человек на двести, был накрыт поминальными столам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усадили на почетное место, рядом с генералами и полковниками, ветеранами СВР. Поминали героя самыми душевными и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Похоронен мой прадед на Троекуровском кладбище. На его памятнике, в левом верхнем углу изображена звезда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права от могилы посажен куст, привезенный из Японии.

Начиная с 1998 года, информация о нём и членах его семьи официально была засекречена на срок до 30 лет. Е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мещены в музей.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о прадедушке хранится в нашей семье. Я горжусь его подвигами, восхищаюсь его боевыми наградами.

Я московский кадет и мой долг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 хорошо учиться и вести себя достойно перед товарищами. Я горжусь почетным званием кадета и хочу продолжить традицию моего прадедушки Ким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Сроки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РК согласовываются

Возможные сроки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К согласовываются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интервью РИА Новости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уле Андрей Кулик.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в Москве 22 июня 2018 год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инял пригла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посетить с визитом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удобное время. Посол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ожида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в текущий год 30-лет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 В День сияющей звезды лидер КНДР почтил память сво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16 феврал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во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Кымсусанский дворец Солнц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 статуям основателя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и его сына Ким Чен Ира были возложены корзины цветов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НД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сетил также Зал бессмертия, где установлены саркофаги с телами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и «поклонился в знак глубокого почтения великому полководцу». Ким Чен Ына сопровожд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Чхве Рён Хэ,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Пак Пон Чжу и премьер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им Чжэ Рён. Годовщина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бывшего лидера КНДР является в стране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 Днём сияющей звезды.

## КНДР приобретает в России породистых скакун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НДР импортировала из России 12 породистых лошадей,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Reuters. По 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ой таможни, стоимость скакунов составила 75 тыс. долларов. Начало таких покупок было положено в 2003 году. Тогда в КНДР в подарок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три жеребца орловской породы Алтайского конного завода. С 2010 года по прошлый год КНДР приобрела в России 138 лошадей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580 тыс. долларов. В октябре и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оказывали, к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на белом коне поднимался на гору Пэктусан. Освещение этой темы, как полагают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укрепление имиджа Ким Чен Ына в качестве силь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траны. Закупки лошадей происходили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острую нехватку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 На долю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ходится 4,9% населения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 млн 524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на 6,6% больше, чем в конце позапрошл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ляет 4,9%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что при достижении отметки в 5% страна относится к категории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Численность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высила 1 млн человек в августе 2007 года и 2 млн человек в июне 2016 года. 68,6% находятся в РК более 90 дней. 43,6%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ходятся на выходцев из Кита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превышает 1 млн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63,3% из них – китайц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Далее следуют вьетнамцы – 224 тыс. человек, тайцы – 209 тыс. человек, американцы – 156 тыс., японцы – 86 тыс., граждане Узбекистана – 75 тыс. человек, филиппинцы и россияне – по 61 тыс. человек. Число нелегалов увеличилось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а 9,9%, составив 39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15,5% всех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К иностран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 414 тыс. человек – проживают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Сеуле – около 282 тыс. человек.

## Восем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держатся в числе лучших по объёму продаж в течение 35 лет

Восем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35 лет сохраняю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по объёму продаж, оставаясь в рейтинге 50-ти лучших. Как сообщили в Институте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70% компаний, вошедших в число 50-ти лучших в 1984 году, к 2018 году были вытеснены из данного списка или сменили собственников. В число тех, кто удержался в рейтинге, входят компании Samsung C&T, Hyundai Engineering&Construction,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Korean Air, Daelim Industrial, Hyundai Motor, LG Chem. При этом продажи Samsung Electronics выросли за это время с 1 млрд до 143 млрд долларов. Компания сохраня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с 2002 года.

## В Москве простились с Валентином Цоем

Москва, 19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19 февраля в ритуальном зале Николо-Архангельского кладбищ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рощания с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а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алентином Валентиновичем Цоем. Он ушёл из жизни 14 февраля на 82-м году жизни. На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был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ген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Ким Донг Джо, писательница Ан Бён Х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Москве,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толицы, друзья, соратники, близкие В.В.Цоя.

Вале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принадлежал к уходящей ныне плеяде романтиков. Люди постарше успели ощутить эту особую ауру «шестидесятников» - поко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родившееся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между 1925 и 1945 годами. Романтичность умноженная на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ь была сутью его натуры до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Как ждал первого свидания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в 1999 году! Потому что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же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 воссоздать биографию своего деда – лидера движения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т Япони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Чхве Джэхёна. 20 лет по крупицам собирал сведения, документы,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нём.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понял, что рядом с лидером было много соратников, которые тоже были одержимы мечтой освободить Родину от порабощения Японией. И тогда возглавил ассоциацию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2005 году,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портретной галере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н написал:

«...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говорю - ассоциация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люди на меня смотрят с нескрываемым изумлением: надо же, чем занимается, это еще что такое? У острологов тут же возникают ассоциации с потомками детей лейтенанта Шмидта. Таковы мы, такова наша жизнь, таков наш менталитет сегодня. Если же разобраться, каждый российский кореец, хорошенько покопавшись в семейных хрониках, может убедиться,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нас с вами. Каждый найдет своего предка, участника те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начала прошлого века. Вышли мы все из Приморья!»

За эти годы Вале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издал целую серию книг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повествующих о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его легендарном лидере Чхве



В.В.Цой род. 18.10.1938 г. в г. Куйбышеве. О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ое высшее техническое училище им. Баумана (1957 – 1963 г.г.).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Автор более 60 авторских свидетельств и изобретений. Прошел путь от инженера до начальника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сесоюзного (ны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легких сплав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авиаци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де работал около 40 лет. Многие годы Цой В.В. был общественным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газет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ё Ильбо» (Казахстан), «Вон Дон» (Приморье).

Джехёна. А каких усилий, настойчивости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и потребовало открытие музея памяти Чхве Джехёна в Уссурийске, который фактически является музеем истории герое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але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был полон планов и идей. В свои 80 лет был всегда легким на подъём, подтянутым и энергичным. Но только его близкие знали секрет молодости Цоя. Движение, занятия физкультурой были его потребностью многие годы. А увлечение с молодости горнолыжным спортом не прекращалось до последних дней. Был неоднократным призером и участником первенств Москвы.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поехал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в Германию. Во время одного из спусков упал, получил тяжёлую травму, которая и стала причиной трагического исхода.

## СМИ: Хакеры взломали смартфон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перебежчика из КНДР

Начавший актив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вший зам посла КНДР в Лондоне Тхэ Ён Хо вновь привлек к себ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смогли взломать смартфон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перебежчика и похитить часть данных, а сам он впервые сообщил то имя, под которым теперь живет на Юге - Тхэ Гу Мин, где заложено значение "спаситель народа".

Напомним, что Тхэ Ён Хо занимал ответственные посты в структуре МИ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ледним его назначением была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посла КНДР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Западные журналисты хорошо его знали и регулярно с ним общались, называя "рупором Страны чучхе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Дипломат часто выступал н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на хорошем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осхвалял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Для всех шоком стало известие о его побеге в августе 2016 г. Тхэ Ён Хо с семьёй в итоге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где и живёт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Он уже написал книгу 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хэ сначала работал в аффилированном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ой научном институте, но затем ушёл оттуда, так как к власти приш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ун Чжэ Ина, сделавшее ставку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Сам же перебежчик стал активно критиковать КНДР и призывать к свержению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днях он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Южной Кореи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редставлять он будет ведущую консервативную партию, которая кри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а к КНДР.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хакерская группа Geumseong121, за которой,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стоят спецслужбы КНДР, смогла взломать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ряда местны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о роду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реди тех, кто пострадал, есть помощники депутатов, журналисты, юрис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включая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перебежчика из КНДР Тхэ Ён Х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Чосон Ильбо"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зидента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Est Security Мун Чжон Хёна, чья фирма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вопросах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амять воинов-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погибши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долга, поч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х близкие,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ежн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обрались 15 февраля у памятника Скорбящей матери. Многие из пришедших принесли с собой портреты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 Уважаемые ветераны! Вы с честью выполнили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И сегодня играете заметную рол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дете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молодежи, работаете на повышение авторитета и престижа воинской службы. Спасибо вам за это! И вечная память погибши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Наумов.

К памятнику Скорбящей матери участники митинга возложили траурную гирлянду от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68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венки и живые цветы.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по традиции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ет 1825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ают им решать различные, в том числе жилищные, вопросы. Эта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августа 2015 года, когда был приня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закон. Всего за эти годы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ли более 170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эт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ено более 7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Горнолыжники-паралимпийцы признались в любви к Сахалин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мог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рганизовать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здесь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е люди и удивительная природа. Своими ощущениями от проходящ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 сахалинским губернатором накануне подел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сборны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бывший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градил победителей четвертого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го дня и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общался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у нас проходят впервые. И мы постарались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портсмены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и смогли показать свои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глава региона. — Сегодня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те, кто был на горе, и те, кто занял место на пьедестале, и зрители. Потому что все мы находимся в среде, где люди любят и уваж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теплой атмосфере за чашкой ча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у спортсменов их ощущениями от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 Я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И очень рад, что знакомство с вашей страной началось именно с Сахалина. Потрясаю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с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Очень отзывчивые и добрые люди, непередаваемой красоты природа. Такое обили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 меня впервые, — отметил параспортсмен из Италии Джакомо Бертаньоли. — Даже снег здесь такой же, как у нас. И климат зимой схожий. Если состязания вновь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юда приеду еще раз.

А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инляндии Сантери Кивери в России уже бывал. Это был летни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От Сахалина я в большом восторге. Первым делом из аэропорта сразу отправился на горнолыжный склон. Отличное качество трассы. Безусловно, очень хочется увезти домой не только медали, но и частичку Сахалина. Знаю,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ранции возили на необыкновенную подледную рыбалку. Хочу увезти с собой сушеную зубатку, — поделил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верной страны.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 всегда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особенно паралимпийцев. — Считаю, что нужно и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проводить подо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еще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например, это может быть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Уверен, ваши страны гордятся вами. Вы не просто спортсмены, вы люди, которые своим примером доказыв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одоления самого себя и любых жизненных барьеров. С радостью будем ждать вас снова на Сахалине.

Напомним,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одится впервые. За медали борются 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ША, Норвегии, Франции, Австрии, Польши, Италии, Швейцарии, Финляндии, Словакии и России. Это участники, призёры и победител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рограмме — пять дисциплин: слалом, слалом-гигант, супергигант,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и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до 21 февраля.

За результатами и новостями можно следить на сайте: <http://worldcup-sakhalin.org/>.

##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зафиксировать цену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жилья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готово к повышенному спросу на квартиры. Он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ищных кредитов.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озможный ценовой скачок на рынке жилья ведомство намерено заключить серию специальных соглашений с застройщиками. В этих документах будет обозначена фиксированная 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ов».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наибольший спрос на жиль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удет на юге острова. Поэтом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селах Троицкое и Ново-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формированы участки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ачнутся аукционы. Речь идет о более чем 10 тысячах квартир,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Стаценко. — Сейчас мы должны понять, какой будет спрос на квартиры, чтобы сориентировать застройщиков, и планируем зафиксировать цену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именно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Для этого с ними планируем заключ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соглашения.

Сейчас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ся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на которых и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программе. Напомни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 это кредит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приобретающих жилье.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увеличить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улучшить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вухпроцентную ипотеку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бербанк, ВТБ,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банк, а также банк ДОМ.РФ. Взять кредит могут молодые семьи, где возраст супругов не превышает 35 лет

и неполны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Также ипотека доступна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землю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ля них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нет. Срок кредитования — до 20 лет.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ая сумма —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и минимальном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взносе 20 процентов от стоимости недвижимости.

Со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сумму жители могут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жилищной программе.

— Мы с семьей давно мечтаем о собственном жилье. Устали снимать квартиры. И не раз собирались взять кредит. Сейчас ждем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накопить сложно, много тр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для нас просто подарок, она позволит осуществить мечту и приобрести жилье. Поскольку и процент более чем выгодный, и средства на взнос нам по сути не требуются,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платежом станет сертификат на субсидию, который мы получили по жилищной программе, — отметила южно-сахалинка Алена Ивченко.

Оформить льготный кредит можно до 31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соответствия параметрам программы.

Всего с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но 759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выдано 202 кредита. Общая сумма заемных средств составила 98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аздник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21 - 22 марта, выбран Ногликский район.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творческие и кулинарные состязания, а также турнир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Коллективы придут из Ох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13 раз — его организуют каждые четыре года.

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ится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досуга. А конкурсные площадки расположат на реках Тымь и Ноглинка.

К фестивалю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соединя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о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одовых хозяйств и общин. Он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большом концерте и ярмарк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обые требования у жюри будут к участникам кулинарного конкурса. Судьи оценят эстетичность оформления стола, ассортимент, вкус, цвет, запах, а также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блюд.

А в рамках север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островитяне соревнуются за звание лучших в прыжках через нарты, трой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прыжке, беге с палкой по пересеч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метании топора и тынзына. Кроме тог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и в других видах спорта —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Побе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ждут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жидается, что фестиваль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берут 1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МИ: Хакеры взломали смартфон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перебежчика из КНДР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не осуществляли атаки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а специально выбирали те или иные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Прием называется Spear Phishing", — сказал Мун. Он пояснил, что рассылались сообщения или письма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озаглавленные как "информация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де была гиперссылка. При переходе по ссылке в устройство загружалось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озволяющее извлекать данные. "Среди похищенных данных были и сведения с телефона экс-зампосла КНДР в Лондоне Тхэ Ён Хо, мы сразу сообщили ему об этом и в итоге решили проблему", — пояснил эксперт.

Хакеры не с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всей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на телефоне Тхэ Ён Хо, но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содержание переписки в мессенджерах, СМС-сообщения, список контактов, фотографии и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сведения.

По словам Мун Чжон Хёна, та же самая хаке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ояла в 2014 г. за похищениями информ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Korea Hydro & Nuclear Power, которая контролирует работу АЭС в стране. Geumseong121 также осуществила атаки на личные электронные устройства бывш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из КНДР, некоторые госструктуры и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Сам Тхэ Ён Хо ранее заявлял о том,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ецслужбы пытались взломать его телефон.

Если всё это правда, 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НДР знают имя, под которым проживает перебежчик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его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на Юг из сообще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выдач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еребежчикам из КНДР меняют имя и дату рождения. То же самое произошло и с Тхэ Ён Хо, но, как теперь очевидно, это не стало большой тайной для Севера.

Так или иначе, сегодня Тхэ Ён Хо и сам сообщил 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мя. На новой родине его зовут Тхэ Гу Мин. Фамилию он оставил ту же самую, а само имя поменял. Имя Гу Мин, если разбирать значение иероглифов, означает "спасающий народ". По словам Тхэ, он выбрал такое имя, что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намерен посвятить себя спасению народа КНДР от правящего там режим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 взломе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Тхэ Ён Хо и его новое имя были переданы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ом компании Est Security с согласия самого Тхэ. В интервью бизнесмен наз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мя Тхэ, а тот сегодня сам объявил его.

По словам перебежчика, он обнаружил своё имя,

так как решил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андидаты в депутаты обяза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ебе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Тхэ будет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и Будущего, которая, кстати, сама сегодня поменяла название, существовав ранее как Партия свободной Кореи. "Я думал над тем, чтобы поменять имя на своё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и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под ним. 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ймёт значительное время, которого у меня нет в связи с начинающейся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ей. В результате я баллотируюсь под тем именем, которое выбрал в декабре 2016 г. после приезда на Юг. Меня зовут Тхэ Гу Мин", — сказал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КНДР.

Некоторые выраж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перебежчика. Теперь его имя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а также прочие данные извест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он вынужден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Если судить по слухам, 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очень болезненно восприняло известие о его беге, назвав предателем.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в Пхеньяне также очень негативно относятся к выбранной Тхэ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 как тот не скрывает своей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желание добиться отстран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от власти. Сам Тхэ говорит, что знает о потенциальных опасностях, но принимает их и готов идти до конца. Его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гда сопровождают два телохранител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조성길 '섬전쟁' 출판기념회 북 콘서트 개최

조성길 소설집 '섬전쟁' 출판기념회 & 북 콘서트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저자와 각계 단체장 및 국내·외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영광도서 옆 소민아트홀 3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출간 축하인사와 작가 작품에 대한 해설과 서평, 시낭송과 축하 공연 등 다양한 구성과 함께 진지하고도 솔직한 저자와의 교감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섬전쟁'은 사실에 입각하여 묘사한 실화에 가까운 소설로 권력 다툼에 희생된 아버지의 복수는 사할린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질곡을 웅변하고 있다.

'섬전쟁'은 한국·일본·러시아 삼국전쟁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절규는 운명을 뒤바꿀 복수로 향한다. 짜릿한 스킬보다 강한 사내들의 다툼, 국경을 타고 흐르는 사랑, 축복한 스토리가 흥미를 더해 빠져드는 전율이 도사린다. 조국을 잃었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가 책 속에 담겨있다. '섬전쟁'은 결코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준다.

"책은 읽을 거리에 재미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나를 손을 내민 만큼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손길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끝내는 뛰어난 문장력과 화려한 수식어도 뒤로 한 채 그저 살아가는 현실의 벽 안에서 우리가 지내온 일상의 이야기를 스스로 읽이 펼쳐서 공감이가도록 하였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 조성길 씨의 이야기다.



▲ 조성길 소설집 '섬전쟁' 출판기념회 & 북 콘서트에서.

저자 조성길: ▶부산출신, 원코리아실천본부 대표, 종합문에 유성고문, BICAC운영위원, 한국청소년신문사 총괄본부장 외 문화·예술·교육계의 민간단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을 두루 맡고 있다. (주)아츠로 부산지사장, 러시아통신원,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지회장, 사할린경제법률종합대학교 한국홍보관을 역임했다. 기타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표창, 경상북도, 대구시장 외 러시아 사할린주정부 국제문화교류대상 외 다수 있다. 저서로는 "겨울꽃", 공저로는 "북방할머니의 이야기", "한글선구자 허조의 생과 삶" 외, 논픽션으로는 "사할린 우리말방생국의 위기", "러시아 CIS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차이" 등이 있다.

[출처: 뉴스부산]

### [신간] 프롬나드 인 러시아 김은희 청주대 연구교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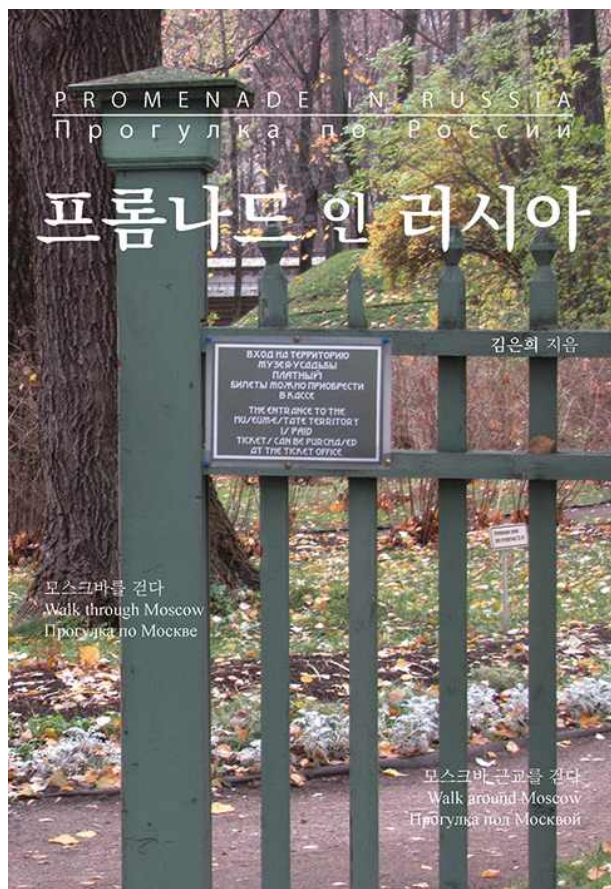
러시아 모스크바는 박물관의 도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모스크바에는 65개 넘는 국립 박물관이 있고, 모스크바주(州)에는 35개가 넘는 저택-박물관, 보존 지역-박물관이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들만 방문해도 러시아의 예술, 문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 전문가인 김은희 청주대 연구교수가 최근 「프롬나드 인 러시아」(이담북스, 310쪽)를 발간했다. 이 책은 모스크바 박물관 방문기다.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안톤 체호프, 투르게네프 등 여러 러시아 문호들의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다. '프롬나드 인 러시아' 부제는 '모스크바를 걷다'이다. 프롬나드는 산책이라는 뜻.

"체호프는 저택 곳곳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했다고 전한다. 예를 들면, 살림집 앞마당은 '소박한 마당', 체호프가 희귀식물을 가꾸었던 채소밭은 '남(南)프랑스', 연못은 '수족관' 등으로 불렀고 또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랑의 가로수길'도 있었다. 체호프가 이 저택에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는 면면이다."(203쪽)

"톨스토이 가족이 실제 거주했던 하모브니키 지역 저택-박물관에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야의 손길이 닿은 수제 카펫과 침대 커버, 도자기 세트, 아이들 장난감 등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톨스토이가 예순 살에 배웠던 자전거 등이 전시되어 있고, 톨스토이가 부상까지 당해가며 직접 사냥했던 곰의 가죽도 거실에 깔려 있다. 저택의 창문에서 보면 아름다운 작은 정원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붙잡는데, 보리수나무, 채스민 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나 있고, 벤치가 어우러져 산책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99쪽) 책 중간중간엔 흥미로운 러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글들도 실려 있다.

저자는 러시아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집필을 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러시아 작가와 작품 그리고 문화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필체를 썼다. 김은희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대한 연구로 러시아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출처: 월드코리아]



현재 청주대학교에 출강 중이며, 러시아 문화와 문학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림으로 읽는 러시아」(이담북스, 2014), 「러시아 명화 속 문학을 말하다」(이담북스, 2010), 공저로 「나는 현대 러시아 작가다」(경희대 출판사, 2012), 「내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음식」(이숲, 2010)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현대 러시아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제1권, 제2권(아카넷, 2014), 「북아시아 설화집 1(부라트족)」(이담북스, 2015), 「겨울 떡갈나무」(한겨레아이들, 2013), 「금발의 장모」(지만지, 2013), 「나기빈 단편집」(지만지, 2009) 등이 있다.

### [우리말로 깨닫다]

### 다시 운동주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면 운동주의 '서시'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달래꽃에 한국인의 사랑과 정서, 한이 담겨있다면 운동주의 서시에는 절실함 또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김소월도 운동주도 상황은 다르지만 요절을 하였기에 더 슬픈 감정이 듭니다. 운동주의 서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로 시작합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시는 젊은 시인의 의욕 가득한 죽음과 맞물려 슬픈 감동을 주고, 반성의 시간을 주고, 다짐의 시간을 줍니다. 시인의 다른 작품 자화상, 참회록, 슬픈 족속, 쉽게 씌어진 시 등과 이어지며 감정의 흐름이 깊어집니다. 저는 시에 관심이 깊어지던 중학교 시절부터 운동주 시인의 서시가 좋았습니다. 제가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서시를 훑어 낸 시를 써 보기도 했습니다. '초의 기도'라는 시였었는데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여러 기회에 운동주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연길에 특강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용정에 있는 운동주 선생의 생가를 가 볼 수 있었습니다. 휘어있는 나무 굴뚝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생가 앞에 중국 조선족 시인 운동주라고 쓰여 있다고 하는데 좀 쓸쓸합니다. 종로구에는 연희전문을 다니던 운동주의 하숙집 터가 있습니다. 서촌에서 수성동 계곡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데 시도 한 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주 선생이 살았던 연희전문의 기숙사가 운동주 기념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수성동 계곡을 올라 청운동을 넘어 가면 운동주 문학관이 있고, 운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는 '서시'와 '슬픈 족속'이 새겨진 시비가 햇살 속에 있었습니다. 시인의 이야기가 언덕을 풍요롭게 합니다.

교토에 갔을 때는 동지사 대학과 교토 조형예술대학에서 운동주 시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에 다니던 시인은 교토 조형예술대학이 있는 곳에서 하숙을 하였습니다. 지금 두 대학에는 운동주 시인의 시비가 서 있습니다. 시비의 소개에는 한국 시인이 아니라 코리아 시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토 조형예술대학에서 동지사 대학으로 가는 길에는 교토인이 사랑하는 가모가와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운동주 시인을 잡아간 시모가모[下鴨] 경찰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모습이 달라졌지만 감정은 그때로 금방 달려갑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인이 걸었을 길을 저도 조용히 걸어보았습니다. 세월이 겹쳐진 다양한 환영(幻影)을 만납니다.

운동주 시인은 시모가모 경찰서에서 잡혀 재판받은 후 고종사촌 송몽규 선생과 함께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불과 반년 앞에 두고 옥사를 합니다. 한 달 사이에 같이 잡혀간 사촌 송몽규 선생도 옥사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욕이 가득합니다. 저는 후쿠오카에 갔을 때 형무소 자리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에 자꾸만 시인의 슬픔이 겹쳐집니다. 마음 한켠에 쌓인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네요.

돌이켜보니 저는 운동주 선생의 생가부터 다니던 학교, 하숙집 그리고 잡혀간 경찰서와 형무소까지 모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기리는 언덕과 문학관, 시비도 만나게 되었네요. 지금은 일본 교과서에도 운동주 시인의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슬픈 족속으로 쉽게 쓰여 지는 시를 쓰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던 젊은이를 만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시인에게서 폭력이나 복수보다는 평화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12월 30일은 운동주 시인의 탄신일이었습니다. 2월 16일은 시인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다시 운동주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태국 한국 교육원에서 새로 한국어 강의실을 여는데 교실 이름으로 어떤 게 좋겠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월'과 '동주'를 추천하였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운동주 시인의 삶과 시가 잘 전해지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оревнуются юные инженеры

Дворец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2017 года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ресурсным центром по проведению всероссийских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21-22 февраля в ДД(Ю)Т пройдет III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ится 21 февраля в 12.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дворц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следующих категориях:

- "ИКаРенок"-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для 15 команд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 "ИКаР-старт"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8 команд учащихся 1-3 классов;
- "ИКаР- классик", "ИКаР -техно", "ИКаР-профи" —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11 команд школьников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лощадка "ИКаР без границ", где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по теме "На пути изобретения —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шеством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ут состязания в категории "ИКаР-программист",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й линейки станут 20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Всег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имет участие 122 ребенка из Ох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обучающиеся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ИРОСО.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боФест-2020", Москв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ДД(Ю)Т.

## 사할린, <쿨리코보 들판>전시회 개최

<포베да>종합기념박물관이 새로운 애국 전시회장이 된다. 전시회는 14세기 러시아 군대가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지휘로 마마이 칸 군사령관 수하 몽고 타타르 압박의 무리를 대패시킨 러시아 전쟁 역사상 주요 사변 중 하나인 쿨리코보 전투를 기념한다. 이번 전시회는 1380년에 발생했던 사변에 대한 물품 전시와 이야기뿐 아니라 전시품들은 현대인들에게 선조 슬라브족의 생활과 삶,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쿨리코보 전투 기념 전시회는 성인과 아동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두고 조성되었다. 견학은 어린 방문객들과 대화로 진행되며 전투 과정과 그들 선조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

<쿨리코보 들판. 영광의 전장>전시회는 <쿨투라(문화)>국가기획사업의 성과이다.

러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운영되는 대형 박물관들은 소규모 문화기관들과 전시품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이 역사 전시

회의 범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전시품들은 <쿨리코보 들판> 톨라 소장박물관의 소장품들로 전시회는 4월 말까지 열린다.

## Выставка «Куликово поле» откры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нов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и. Она посвящена одному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в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и — Куликовской битве, где русские войска во главе с великим князем Дмитрием Донским разбили полчища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го ига под предводительством хана Мамая.

Эта экспозиция — не только детальный показ и рассказ о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1380 году.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экспонаты помогают современному человеку узнать о жизни и быте своих славянских предков, а также об их вооружении.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Куликовской битве, организовал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она вызывает интерес не только у взрослых, но и у детей. Экскурсоводы проводят с юными посетителями беседы, доступно рассказывая не только о ходе битвы, но и о бытовой жизни их пращуров.

Выставка «Куликово поле. Поле ратной славы» —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Большие музеи, работающие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делятся экспонатами с маленькими культур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Так, все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южно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увидеть в рамках исторической экспозиции, принадлежат тульскому музею-заповеднику «Куликово поле».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